

李商隱 詩 舊注 중에 나타난 詩語의 音義關係 研究*

염재웅**

(건국대학교 부교수)

◆ 국문초록

李商隱은 晚唐시기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590여수의 시를 남겼다. 본 논문에서는 李商隱 詩에 대한 역대 학자들의 注釋을 통하여 詩語 속에 담긴 다양한 音義關係와 특징을 탐색했다. 그 결과 “詩語의 音義關係를 說明한 韻律” 12개와 “詩語의 特徵 및 韻律을 說明한 韻律” 5개의 핵심적인 韻律을 찾아냈다. 특히 “詩語의 音義關係를 說明한 韻律”을 분석해보니 李商隱 詩語의 注釋과 古代 중국어의 음의관계가 일치하는 유형과 그렇지 않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유형에 대한 세부 분석을 위해서 詩律의 仄仄을 적용했다.

주제어 : 李商隱 詩, 音義關係, 異讀字, 變調構詞, 詩律

1. 서론

『詩經』 이래로 중국에서 韻文인 詩는 많은 문인과 학자 그리고 서민들에게 환영받고 애송되었다. 科擧제도의 발달과 함께 詩의 중요성은 하나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며, 詩의 내용상의 아름다움과 韻律적 요소와 엄격한 詩律이 중시하게 된다. 唐詩는 내용과 형식면에서 중국 시가의 전성기이고, 李白, 杜甫, 白居易, 李商隱 등 수많은 시인들이 나타나 그들이 남긴 주옥같은 작품들은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중국인들은 대대로 唐詩를 사랑해왔으며, 많은 문인과 학자들이 唐詩의 전반에 대해 연구한 내용은 주석의

* 이 논문은 2017년도 건국대학교 KU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건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형식으로 詩 원문과 함께 전해지고 있다. 그들이 작성한 주석의 내용은 주로 唐詩 作者의 생평, 詩作의 시기 및 장소 고증, 감상소감, 詩의 율격, 詩語의 의미와 독음의 문제 등, 종류가 다양하고 양적으로도 방대하다. 注釋家의 관심영역에 따라, 어떤 注釋家는 詩語의 언어학적인 측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注釋家도 있는가 하면, 清代 仇兆鰲처럼 많은 音注와 音義關係와 관련 있는 주석을 남긴 학자도 있다. 清代 注釋家들의 기록 중에는 위에서 언급한 문학과 문헌학에서의 관심분야뿐만 아니라 唐詩 詩語의 讀音, 字義, 詩律 및 詩의 字句, 각각의 段落 간의 관계, 詩의 구성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예를 들면, 馮浩의 『玉谿生詩集箋注』에서는 李商隱의 시에서 난해한 詩語가 나오면 대부분 『廣韻』, 『集韻』, 『古今韻會舉要』 등의 韻書을 근거로 釋義하기도 하였다.

宋代부터 清代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학자들이 唐詩를 연구하고 자신의 견해를 담아 注釋을 달았다. 그 가운데 주요한 학자의 예를 들면, 李白詩에 대해서는 王琦가 있고, 杜甫詩에 대해서는 朱鶴齡, 趙次公, 黃希, 黃鶴, 錢謙益, 仇兆鰲, 施鴻保 등이 있으며, 李商隱의 詩에 대해서는 朱鶴齡, 馮浩, 紀昀 등이 주석을 달고 설명을 가하였다. 이처럼 唐詩에 대해 역대학자들이 달아놓은 주석을 일반적으로 唐詩 舊注라고 하는데, 唐詩 舊注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清代 학자들의 주석이다. 본 연구는 이들이 李商隱 詩의 詩語에 대해 가한 주석과 설명을 정리하고, 이 가운데 언어학적으로 분석이 가능한 자료를 분류하여 다방면으로 고증하였다.

李商隱¹⁾은 晚唐시기를 대표하는 시인이며 그의 詠懷詩, 詠物詩, 愛情詩에서 특별한 성취를 이룬 시인이다. 그 영향력만큼 그동안 문학이나 문헌학

1) 陳永正(1980:3~17) 참고. 李商隱(813年-858年), 은 字가 義山이고, 號는 玉谿生이다. 唐代 懷州 河內(현재 河南省 沁陽縣) 출신이었다. 지방 관원을 지내던 귀족집안에서 태어났으나 일찍 부친을 여의고 가정환경이 불우하였다. 李商隱은 이러한 자신의 처지에 굴복하지 않고 부지런히 공부하여 벼슬길에 나아갈 준비를 했고, 나중에 天平軍節度使 令狐楚에게 발탁되었다. 開成二年(837年)에 과거에 급제하여 정식으로 벼슬길에 나갔으나 당파싸움에 휘말려 37세의 나이에 수도 장안을 떠나 전국을 유랑하면서 詩作에 전념하였다. 李商隱은 晚唐 후기의 가장 빛나는 시인으로 칭송 받아왔으며, 그가 當代와 後代의 문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李商隱의 시는 내용이 풍부하고, 주제가 광범위한 뿐만 아니라 몰락해가는 唐왕조의 정치 사회적 면모를 반영하고 있다.

방면에서 李商隱 詩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古代 中國어 언어학의 관점에서 李商隱 詩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히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李商隱 詩의 詩語와 이에 대한 후대 학자들의 注釋을 위주로 音韻, 詞義, 句法, 詩律 등과 관련한 다양한 해석을 연구대상으로 했다. 또한 역대 注釋家들이 어휘학, 음운학, 시율학의 관점에서 이 詩語들의 音義關係를 어떻게 인식하고 서술하였는지, 그리고 현재의 언어학의 관점에서 이들의 견해가 타당성이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했다. 일반적으로 唐詩를 연구한 선행연구도 적지 않으나, 唐詩의 詩語와 唐詩의 주석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많지 않으며 더욱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李商隱詩 舊注 詩語 연구를 통해 선행연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했다.

우리가 詩의 한 구절에 나오는 어휘를 정확히 이해하고자 할 때 어려운 점 가운데 하나는, 해당 어휘의 정확한 독음과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만약 해당 어휘의 독음과 의미가 여러 개일 때, 앞뒤 문맥에 맞는 적당한 독음과 의미를 찾는 것은 더욱 어렵다. 唐詩의 注釋家들도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 시어에 音注를 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역대 여러 注釋家들이 李商隱 詩에 단 注釋이 음운적으로 그리고 의미적으로 타당한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 古代漢語에 대량으로 수록된 異讀字에 대해 주의하였고, 특히 漢語의 음의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異義異讀字나 音變構詞에 대해서 비교 분석했다. 古代漢語는 단음절 어휘를 위주이고 형태 변화가 없어서 상고한어시기에는 音變構詞를 통한 構詞法이 상당히 널리 사용되었다. 그 유형도 다양해서 한 어휘를 구성하는 하나의 음절에서 성모, 운모, 성조를 변화하여 원래의 어휘에서 파생된 “變聲構詞, 變韻構詞, 變調構詞”를 만들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된 어휘는 周祖謨(1946), G.B.Downer(1959), 周法高(1962), 孫玉文(2015) 등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였다. 中古漢語에 속하는 唐詩의 詩律이라는 구조와 近代漢語시기에 속하는 후대 注釋家들의 해석이라는 구조 사이에 어떤 조화와 간극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이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唐詩 舊注란, 바로 이러한 清代 문인들이 수집하고 해석한 역대 주석을 가리킨다. 李商隱 詩에 대한 舊注는 [明]錢龍惕의 『玉谿生詩箋』, [清]朱鶴齡의 『李義山詩集箋注』, [清]吳喬의 『西崑發微』, [清]陸崑

曾의 『李義山詩解』, [清]姚培謙의 『李義山詩集箋注』, [清]屈復의 『玉谿生詩意』, [清]程夢星의 『李義山詩集箋注』, [清]馮浩의 『玉谿生詩集箋注』, [清]紀昀의 『玉谿生詩說』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역대 주석가들의 주석을 망라하여 수록하고, 저자인 劉學鐙와 余恕誠(1988)이 역대 학자들의 주석에 대해 자신들의 견해도 함께 첨부한 『李商隱詩歌集解』를 기본 텍스트로 정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II. 본론

본 논문의 주 텍스트인 『李商隱詩歌集解』에 수록된 수많은 주석 가운데 詩語의 音義關係와 관련이 있는 注釋은 백여 건이었다. 이 중 대다수는 僻字나 難字에 대해 단순히 독음을 표시하거나 의미를 설명한 것, 혹은 별도의 해석이 필요 없는 간단한 주석이었다. 본 장에서는 “詩語의 音義關係를 說明한 용례” 12개와 “詩語의 特徵 및 韻律을 說明한 용례” 5개 등, 李商隱詩의 특징이나 음의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용례를 선별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분석 하였다.

1. 詩語의 音義關係를 說明한 용례

李商隱詩에 대한 注釋 가운데 각각의 詩語의 독음과 의미 사이의 연관 관계에 대해 설명한 용례가 많다. 예를 들면, 『行次西郊作一百韻』 “예의의 등급이 임금이나 아버지를 대하는 것과 다르고, 강족 선영처럼 농락하려 했습니다.(禮數異君父, 羈縻如羌零.)”의 “零”字에 대해 朱鶴齡의 『李義山詩集箋注』(1988:247)에서는 “零”字는 독음이 ‘隣’이다. ‘先零’은 西羌族의 이름이다.(零, 音隣. 先零, 西羌名.)”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용례에서는 常用되지 않는 “零”字의 독음과 의미를 설명했을 뿐 특별한 音義關係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단순한 용례를 제외하고, 古代 중국어의 핵심적인 音義關係가 포함된 注釋들을 대개 詩의 원문, 해당 注釋, 보충설명 순서로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① 冰

李商隱의 『柳枝五首』 “좋은 오이는 덩굴이 길게 뻗었고, 푸른 옥은 냉수처럼 차갑다.”²⁾(嘉瓜引蔓長, 碧玉冰寒漿。)

위의 시 구절에서 詩語 “冰”자에 대해서 馮浩의 『玉谿生詩集箋注』(1988:104)에서는 “‘冰’字는 거성이며, ‘逋孕切’으로 독음한다. 『集韻』을 참고하라.(冰, 去聲, 逋孕切, 見 『集韻』。)”라고 했다. 馮浩의 견해대로 『集韻』에서 “冰”자에 대한 음의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集韻』에서는 平聲 독음(悲陵切)에 대하여, “『說文』에서 ‘氷(冰)’字는 ‘얼다’라는 의미이다. (자형은) 물이 어는 형상과 비슷하다. 어떤 자형은 ‘水’를 義符로 하는데, 또 다른 자형은 ‘冫’의 글자를 쓰기도 한다.(『說文』: “氷, 凍也. 象水凝之形. 或从水亦書作冫文”))”라고 설명하였다. 去聲 독음(逋孕切)에 대해서는, “냉기가 다가오다”라는 의미이다.(冷迫也。)”라고 기록했다. 『集韻』의 기록을 종합해보면, “冰”字가 平聲 독음일 때, “얼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쓰이거나, “얼음”이라는 의미의 명사로 쓰인다. 去聲 독음일 때, “추위가 다가오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쓰인다고 기록했다. 이를 통해 『集韻』의 “冰”자에 대한 平去聲 음의관계를 명백히 구분하여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李商隱의 『石城』중의 “대자리의 한기가 베개에 스밀 듯하고, 주렴에 비친 불빛에 고리를 감추지 못한다.”³⁾(簾冰將飄枕, 簾烘不隱鉤。)

위의 시 구절에서 詩語 “冰”자에 대해서 朱鶴齡의 『李義山詩集箋注』(1988:1755)에서는 “‘冰’字는 독음이 ‘卑病切’이다. 『唐韋思謙傳』에는 ‘콧물이 얼음이 되어 수영에 응고되었다.(涕泗冰須)’라는 구절이 있다. ‘冰’이라는 것은 콧물이 수영에 붙어 응고된 것을 말한다. 독음은 去聲이다.(冰, 卑病切. 唐 『韋思謙傳』: “涕泗冰須.” 冰謂涕着須而凝也, 讀去聲。)”라고 하였다. 원문에는 “水”자를 썼는데, 朱鶴齡은 “水”자를 “冰(氷)”로 기록하고 “去

2) 『이의산시집』 (이지운·김준연譯), (2018:1272) 국문번역 인용.

3) 『이의산시집』 (이지운·김준연譯), (2018:129) 국문번역 인용.

聲”이라고 주석을 달았다. 朱鶴齡의 판본뿐만 아니라, 蔣本, 姜本, 戊本 등 9개의 판본에서 “冰(氷)”로 썼다.

劉學鐙、余恕誠(1988:1756)은 “朱、馮注非。‘冰’자는 ‘콧물을 응고시키다(凝涕)’라고 하는 것과 같은데, ‘베게에 흘날리네(飄枕)’라는 구절과 일치하지 않는다. 만약 눈물을 흘리는 것을 가리킨다면 ‘冰’자를 쓰면 안 된다. ‘冰’자를 쓴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라고 하여 朱鶴齡의 견해를 반박하였다.

李商隱의 『蠅蝶雞鸞鳳等成篇』중의 “바다거북 껍질이 서고를 밝히고 (서고는 바다거북 껍질로 장식하고), 유리가 술 단지에서 언다(유리 술 단지에 담긴 술이 차갑다).⁴⁾(玳瑁明書閣, 琉璃冰酒缸。)”

위의 시 구절에서 詩語 “冰”자에 대해서 朱鶴齡의 『李義山詩集箋注』(1988:1800)에서는 “‘冰’자는 독음이 去聲이다.(冰, 去聲。)”라고 하였다.

“冰(氷)”자는 고대한어에서 變調構詞에 속한다. 變調構詞 “冰(氷)”에 대해서 孫玉文(2015:106)은 “‘冰’자의 원시사는 ‘물이 0도 혹은 0도 이하에서 어는 고체’라는 의미이고, 명사이며, 독음은 ‘筆陵切(平聲)’이다. 자생사는 ‘결빙되다’, 의미가 파생되어 ‘대단히 춥다’, ‘사람으로 하여금 추위를 느끼게 하다’라는 의미이다. 동사이며, 독음은 ‘連孕切(去聲)’이다.(冰, 原始詞, 義爲水在零度或零度以下結的固體, 名詞, 筆陵切(平聲)。滋生詞, 義爲結冰; 引申爲十分寒冷, 令人感到寒冷, 動詞, 連孕切(去聲。))”라고 설명하였다. 고대한어의 變調構詞의 양상을 정리해보면, “冰”字는 평성과 거성의 異義異讀字이며, 독음이 평성일 때는 명사의 의미를, 독음이 거성일 때는 동사의 의미를 갖는다. 朱鶴齡은 『柳枝五首』, 『石城』, 『蠅蝶雞鸞鳳等成篇』에 나오는 “冰”字에 대해 모두 독음이 去聲이라고 하였는데, 모두 古代중국어의 음의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朱鶴齡이 “冰”字의 음의관계와 시율을 모두 고려하여 注釋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괄호 속 번역은 『이의산시집』(이지운·김준연譯), (2018:129) 국문번역 인용. 괄호 앞 부분의 번역은 시어 ‘冰’字의 어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저자가 직역한 내용임.

② 參(摻)

李商隱의 『聽鼓』 “<어양참과>곡을 물어보려 해도, 지금은 예행이 없다.⁵⁾
(欲問<漁陽摻>, 時無禰正平.)”

위의 시 구절에서 詩語 “摻”字에 대해서, 馮浩의 『玉谿生詩集箋注』(1988:795)에서는 “摻”字를 “摻撾(손에 잡고 두드리다)”라는 의미로 보았다. 또한 『後漢書』의 “復參撾而去(다시 손에 잡고 두드리며 가다)”라는 구문을 해석하기 위해 注를 인용하면서 “다듬질하거나 두드리며, 북을 친다는 의미이다. ‘參撾’란 북을 치는 방법이다. […] ‘參’자는 독음이 ‘七紺反’이다. 후대의 문인들이 대부분 이와 같이 사용했다. 이를 근거로 시의 의미를 살펴보면, ‘參’은 연주곡의 명칭이다. 따라서 ‘撾’字가 다음 구문에 들어가면 문장이 완성되지 않는다. 아래 구문에 ‘다시 손에 잡고 두드리며 가다’라는 것으로 ‘參撾’의 두 글자가 서로 연결한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다. ‘參’을 거성으로 독음하는 것은 근거를 알 수 없다. ‘參’자의 독음은 ‘七甘反(평성)’이다.(撾及撾, 並擊鼓杖也. 參撾是擊鼓之法. […] ‘參, 音七紺反.’ 後諸文人多同用之. 據此詩意, 則 ‘參’ 曲奏之名, 則 ‘撾’ 字入於下句, 全不成文. 下云 ‘復參撾而去’, 足知參撾二字相連. 而讀參爲去聲, 不知所憑也. 參, 七甘反.)”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馮浩는 李商隱의 『聽鼓』에 쓰인 “摻”字에 대하여 “내 생각에는 ‘漁陽摻’이라는 구문에서 ‘摻’자는 본래 ‘參’으로 써야한다. ‘摻’자가 『詩經』의 鄭風과 魏風에서 보이므로, 후대 사람들이 손 수(手)변을 첨가했을 뿐이다. 徐鍇는 ‘摻’字의 독음은 ‘七監反’이고, ‘세 번 북을 두드리다’라는 의미라고 하였다. 또한 거성으로 독음하기도 한다. (按：此用 ‘漁陽摻’, […] 字本作 ‘參’. 至 ‘摻’ 字見 『詩經』 鄭風、魏風, 或後人於此亦加手耳. 徐鍇曰：‘摻, 音七監反, 三撾鼓也.’ 亦作去聲矣.)”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서 馮浩는 “摻”字의 本字를 “參”이라고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음의 관계에 있어서 徐鍇의 注解를 인용하여 “摻”字는 기본적으로 평성으로 보았고, 거성으로 독음하기도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는 “摻”字를 同義異讀字로 판단한 것이다.

5) 『이의산시집』 (이지운·김준연譯), (2018:376) 국문번역 인용.

『廣韻』에서는 “摻”字의 平聲 독음(所咸切)에 대해서 “바로 위의 표제자(攢)와 같다. 『詩經』에서는 ‘부드럽고 섬세한 여자의 손’이라고 하였다.(上同⁶). 『詩』曰：‘摻摻⁷女手.’)”라고 하였다. 한편, “摻”字의 去聲 독음(所斬切)에 대해서 “‘손으로 잡아당기다’라는 의미이다. 『詩經』에서는 ‘당신의 소매를 잡아당기리라’라고 하였다.(擘也. 『詩』曰：‘摻執子之袂兮⁸.’)”라고 하였다. 이처럼 『廣韻』 중의 “摻”字는 平去聲의 異議異讀字이다. 李商隱의 『聽鼓』 중의 詩語 “摻”字는 “(북을 치며 연주하는) 연주곡”이라는 의미이므로, 『廣韻』에서 나타난 “摻”字에 대한 음의관계로 볼 때, “손으로 잡아당기다”라는 의미의 去聲 독음에서 파생한 어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燒

李商隱의 『腸』 “뜨거움은 급한 불로 펄펄 끓는 듯하고, 차가움은 잔물결이 뚝고 지나가는 듯.”⁹(熱應翻急燒, 冷欲徹空波.)”

위의 시 구절에서 詩語 “燒”字에 대해서 朱鶴齡의 『李義山詩集箋注』(1988:820)에서는 “‘燒’字는 去聲으로 독음한다. (燒, 去聲.)”라고 하였다. 한편, 馮浩의 『玉谿生詩集箋注』(1988:820)에서는 이 구절이 『莊子·在宥』편의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시달림을 받을 때, 그 열기가 타오르는 불과 같고, 그 냉기는 응고된 얼음 같네.(廉劇彫琢, 其熱焦火, 其寒凝冰.)”라는 구절에서 유래하였다고 밝혔다.

『廣韻』에서 “燒”字의 平聲 독음(式照切)에 대해서는 “‘불’, ‘(불에) 타다’라는 의미이다.(火也. 然也.)”라고 하였고, 去聲 독음(失昭切)에 대해서는 “‘방화하다’라는 의미이다.(放火)”라고 하였다. 이상의 『廣韻』의 기록을 근

-
- 6) 위의 표제자 攢에 대한 『廣韻』의 釋義는 “여성의 손 모양(女手兒)”이라고 하였다.
 7) 『詩經注析』(1991:289)에서는 『詩經·魏風·葛屨』중에 나오는 이 어휘에 대해서 “‘摻摻’이라는 표현은 『韓詩』에서는 ‘織織’으로 썼다. ‘摻’은 ‘織’의 가차자로, 여자의 두 손이 부드럽고 섬세한 것을 형용한다.(摻摻, 『韓詩』作織織, 摻是織的假借字, 形容女子雙手的柔弱織細.)”라고 풀이했다.
 8) 『詩經注析』(1991:235)에서는 『詩經·鄭風·遵大路』 중의 이 어휘에 대해서 “‘摻’자는 ‘操’자를 잘못 쓴 것이다.(摻, 疑爲‘操’字之譌.)”라고 하였다.
 9) 『이의산시집』 (이지운·김준연譯), (2018:376) 국문번역 인용.

거로 “燒”字는 異義異讀字임을 알 수 있다. 平聲 독음(式照切)일 때는 명사로 “불”이라는 의미이거나 자동사로 “(불에) 타다”라는 의미이며, 去聲 독음(失昭切)일 때는 타동사로 “불을 놓다”, “방화하여 태우다”라는 의미라고 기록했다. G. B. Downer(1959:290)에서는 “滋生詞가 복합구조인 유형”으로 분류하고, 原始詞의 의미는 “타다(to burn)”라고 했으며, 滋生詞의 의미는 “조리용 석기(cooking-stones)”라고 하였다. G. B. Downer의 “燒”字에 대한 음의관계 분석 가운데 滋生詞에 대한 해석은 소수의 용례를 근거로 한 것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G. B. Downer의 견해보다는 『廣韻』의 기록이 李商隱의 『腸』중의 詩語 “燒”字를 해석하기에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古代 중국어에서 “燒”字는 平去聲의 異義異讀字이다. 朱鶴齡은 “燒”字는 去聲으로 독음해야한다고 주석하였으므로 “燒”字가 “불을 붙여 태우다”라는 의미의 타동사로 쓰이는 것으로 본 것이나 같다. 반면에 馮浩는 이 구절이 『莊子·在宥』편의 “焦火”라는 구문을 인용했으므로 『腸』의 詩語 “燒”字는 독음과 관계없이 “타오르는 불”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생각한 것이다.

詩律의 측면에서 보면 『腸』은 五言律詩에 해당된다. “熱應翻急燒, 冷欲徹空波.”라는 구절의 平仄 格式은 “首句平起仄收式”에 속하며 (“仄)仄平平仄, 平平仄仄平.”¹⁰⁾과 같다. 이 平仄 格式에 따르면 “燒”字는 仄聲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朱鶴齡이 “燒”字를 去聲으로 독음해야한다고 주석을 한 이유는 이 시의 시율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燒”字를 일반적으로 알려진 平聲으로 독음하면 시율에 어긋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燒”字의 音義關係를 고려할 때 滋生詞(去聲)의 의미는 적합하지 않다. 詩라는 문학 장르에서 詩語가 모호성을 가질수록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지므로, 李商隱이 시율에 따라 平仄을 맞출 수 있지만 의미적으로는 모호성을 띄는 詩語를 의도적으로 선택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¹¹⁾ 혹은 의미적으로는 原始詞(平聲)의 의미를 따르고, 독음에 있어서

10) 王力(1989b:505) 참고. 본 平仄 格式에서 동근 괄호 속에 쓴 平仄은 平聲의 글자가 와도 되고, 仄聲의 글자가 와도 되는 상황을 나타냄.

11) 仇兆勳의 『杜詩詳注』에서는 어떤 詩語가 異讀字로서 詩律에 어긋날 때, “義從△△,

는 滋生詞의 성조(去聲)를 따르는 방법을 선택했을 수도 있다.

④ 數

李商隱의 『回中牡丹為雨所敗二首』 “옥쟁반에 솟구치는 눈물에 마음 아
프길 수차례, 비단 비파의 깜짝 놀랄 현 소리에 꿈에서 깨길 여러 번.¹²⁾
(玉盤迸淚傷心數, 錦瑟驚弦破夢頻.)”

위의 시 구절에서 詩語 “數”자에 대해서, 朱鶴齡의 『李義山詩集箋注』
(1988:273)에서는 ““數”자는 독음이 ‘色角切’이다. (數, 色角切.)”라고 하였다.

李商隱의 『李花』 “자두나무 오솔길 혼자서 오길 여러 번, 근심스런 정이
자두 꽃과 함께 매달려 있다네.¹³⁾(李徑獨來數, 愁情相與懸.)”

또한 위의 시 구절에서의 詩語 “數”자에 대해서, 劉學鐸, 余恕誠注(1988:
1572)에서는 ““數”字는 ‘빈번하다’라는 의미이다. 두 구문에서는 (數, 頻. 二
句謂頻自獨來李徑, 愁情懸懸, 與李花正復相似.)”라고 하였다.

孫玉文(2015:403)은 變調構詞인 入聲 “數”의 音義는 “數2”의 滋生詞¹⁴⁾에
서 파생된 것으로 보았다. 즉, “數”의 ‘숫자’라는 의미는 본래 계산 후에 얻
어낸 결과이다. 하나 이상의 사물의 양을 가리킨다. 이로부터 ‘다수’, ‘빈도’
라는 의미로 파생되었고, 공간의 양에서 시간의 양으로 전환되고, 중성적인
양에서 대량, 다량이라는 의미이다. 이 ‘數’는 서술어와 상황어로 쓰이며,
또한 여다 수사나 형용사와 연용된다. 독음은 ‘所角切’이다.”¹⁵⁾라고 설명하

讀從○○”라는 특수한 용어로 그 상황을 설명했다. 만약 李商隱의 『腸』를 仇兆
鰲의 이 용어로 설명한다면, “義從平聲, 讀從去聲”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2) 『이의산시집』 (이지운·김준연譯), (2018:1541) 국문번역 인용.

13) 『이의산시집』 (이지운·김준연譯), (2018:334) 국문번역 인용.

14) “數2”의 원시사와 자생사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數”자의 원시사는 ‘일일
이 열거하다’, ‘계산하다’라는 의미이고, 동사이며, 독음은 ‘所矩切(上聲)’이다.
자생사는 ‘숫자’, ‘역사’, ‘도수’라는 의미이고, 명사이며, 독음은 ‘色句切(去聲)’
이다.(數2, 原始詞, 義爲一一列舉, 計算, 動詞, 所矩切(上聲). 滋生詞, 義爲數目;
歷史, 道數, 名詞, 色句切(去聲).)”

15) “數”의 “數目” 본是指經過計算後得到的結果, 指一個以上的事物的量. 由此滋生

였다. 變調構詞 “數”字의 原始詞와 滋生詞는 詩律로 볼 때 모두 仄聲이므로, “數”字는 詩律에 있어서는 音義關係를 판단하는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 두 詩句의 앞뒤 문맥상 “數”의 입성 독음과 그 의미로 注釋을 가한 것은 타당하다고 하겠다.

⑤ 中

李商隱의 『哭劉司戶蕢』 “길거리에서 억울한 편적을 논하는 이들, 모두 중흥에 있다고 한다.¹⁶⁾(路有論冤謫, 言皆在中興.)”

위의 시 구절에서 詩語 “中”자에 대해서 朱鶴齡의 『李義山詩集箋注』에서는 “中”자는 ‘張仲切’으로 독음한다.(中, 張仲切)”라고 하였다. 劉學鑑, 余恕誠注(1988:369)에서는 “中”字는 ‘다시, 재차’라는 의미이다.(中, 再.)”라고 하였다.

“中”字는 上古 중국어에서 전해진 變調構詞이다. 孫玉文(2015:261~266)¹⁷⁾에서는 “中興’의 ‘中’자는 원래 去聲으로 읽었고, 나중에는 平聲으로 독음했다. 『詩·大雅·烝民·序』에서는 “『烝民』은 尹吉甫가 宣王을 찬양하고자 쓴 시이다. 현자를 등용하고 능력 있는 자를 써서 周 왕실을 중흥하도록 하였다.”라고 했다. 音義에서는 “中興’의 ‘中’자는 독음이 ‘張仲反’이다. 疏에서는 ‘周 왕실이 이미 쇠퇴했으나, 정중앙의 도에 맞춰 부흥하자, 그를 찬양한 것이다.(“中興’의 ‘中’原來也讀去聲, 後來才讀成平聲. 『詩·大雅·烝民·序』: “『烝民』, 尹吉甫美宣王也, 任賢使能, 周室中興也.”) 音義: “中興, 張仲反.” 疏: “周室既衰, 中道復興, 故美之也.”)”라고 했다. 李商隱의 『哭劉司戶蕢』의 詩語 “中”字 역시 “中興”이라는 어휘에서 나왔으므로 孫玉文(2015)의 고증 결

出 “多次, 頻數”一義, 由空間的量轉指時間的量, 而且由中性的量轉指量大, 量多. 這個 “數” 可以作謂語和狀語, 還可以跟其他數詞或形容詞連用, 讀所角切.

16) 『이의산시집』 (이지운·김준연譯), (2018:977) 국문번역 인용.

17) 孫玉文(2015:261~266)에서는 變調構詞 “中2”에 대해서 “原始詞는 ‘중앙’, ‘중간’이라는 의미로, 명사이며, 독음은 陟弓切(平聲)이다. 滋生詞는 특정하여 정중앙의 위치를 가리키며, 명사이고, 독음은 陟仲切(去聲)이다. (原始詞, 義爲中央, 中間, 名詞, 陟弓切(平聲). 滋生詞, 特指正中的位置, 名詞, 陟仲切(去聲))”라고 설명하였다.

과를 적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音義關係상 “中”字를 당시에 去聲으로 독음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이 詩는 近體詩이므로 五言絶句의 詩韻 格律을 참고할 수 있다. 王力(1989a:514)에서는 五言絶句의 平仄 格式 중 “首句仄起仄收式”에 대해 “(仄)仄平平仄, 平平仄仄平。”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이 平仄 格式은 李商隱의 『哭劉司戶蕡』首句의 平仄 格式에 들어맞으므로 李商隱의 『哭劉司戶蕡』은 五言絶句임을 증명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 平仄 格式 속에서 두 번째 구절의 네 번째 글자는 반드시 “仄聲字”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異義 異讀字인 “中”字는 平聲과 去聲의 독음 가운데 반드시 仄聲에 해당하는 去聲으로 독음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朱鶴齡의 注音은 대단히 타당성이 있다.

⑥ 與

李商隱의 『辛未七夕』 “어찌 까마귀와 까치에게 보답할 생각하지 않고, 오직 거미에게 길쌈 재주의 실만 바라는가.¹⁸⁾(豈能無意酬烏鵲, 惟與蜘蛛乞巧絲.)”

위의 시 구절에서 詩語 “與”字에 대해서 劉學鐙, 余恕誠注(1988:1059)에서는 “‘與’字는 ‘주다’라는 의미이다.(與, 給也.)”라고 하였다.

李商隱의 『悼傷後赴東蜀辟至散關遇雪』 “검문관 밖 멀리서 종군하는데, 옷을 부쳐줄 집사람이 없구나.¹⁹⁾(劍外從軍遠, 無家與寄衣.)”

또한 위의 시 구절에서 詩語 “與”자에 대해서 劉學鐙, 余恕誠注(1988:1116)에서는 “‘與’字는 去聲이고 ‘주다’라는 의미이다.(與(去聲), 給也.)”라고 하였다.

『廣韻』에서 “與”字의 上聲 독음(余呂切)에 대해서는 “‘선하다’, ‘상대하다’라는 의미이다. 『說文』에서는 ‘무리를 지어 함께 하다’라고 풀이했다.(善也.)”

18) 『이의산시집』 (이지운·김준연譯), (2018 : 376) 국문번역 인용.

19) 『이의산시집』 (이지운·김준연譯), (2018 : 61) 국문번역 인용.

待也。『說文』曰：‘黨與也。’)”라고 하였다. 去聲 독음(羊洳切)에 대해서는 “‘참여하다’라는 의미이다.(參與)”라고 하였다. 또한 『群經音辨·辨字同音義』에서는 “‘與’字가 ‘授(주다)’라는 의미일 때, 독음은 以呂切이다. ‘與’字가 ‘及(미치다, 다다르다)’라는 의미일 때, 독음은 余侷切이다.(與, 授也, 以呂切. 與, 及也, 余侷切.)”라고 설명하였다. 이상의 『廣韻』과 『群經音辨』의 문헌 기록을 근거로 “與”字는 異義異讀字임을 알 수 있다. G. B. Downer (1959:285)는 “與”字의 變調構詞을 “파생사가 효과를 드러내는” 유형으로 분류하고, 原始詞의 詞義를 “to be with(함께 하다)”라고 해석했고, 滋生詞의 詞義를 “to take part in(참가하다, 참여하다)”라고 설명했다. 孫玉文(2015:507)은 “與”字의 變調構詞의 상황에 대해 “給子(주다)’라는 의미는 “與”字의 原始詞의 本義이며, ‘偕同(동반하다), 結交(친교를 맺다), 親附(친근하게 지내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引申義이다. 滋生詞의 ‘參加(참가하다), 參與(참여하다)’라는 의미는 ‘偕同(동반하다), 結交(친교를 맺다), 親附(친근하게 지내다)’라는 의미에서 직접 파생된 것이고, ‘給子(주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것이다.(“給子”義是“與”原始詞的本義, “偕同, 結交, 親附”義是其引申義. 滋生詞的“參加, 參與”義是由“偕同, 結交, 親附”義直接引申來的, 不是“給子”義直接引申來的.)”라고 보았다.

이상의 문헌 기록과 학자들의 분석으로 볼 때, 李商隱의 『辛未七夕』 및 『悼傷後赴東蜀辟至散關遇雪』 중의 “與”字가 “給子(주다)”라는 의미로 쓰였다면 독음은 劉學鎧, 余恕誠注(1988:1116)의 주장처럼 去聲이 아니라 上聲이 옳은 것이다. 또한 詩律의 측면에서 볼 때, 『悼傷後赴東蜀辟至散關遇雪』 중의 “劍外從軍遠, 無家與寄衣.”의 平仄 格式上 五言絕句이며, “首句仄起仄收式”인 “(仄)仄平平仄, 平平仄仄平.”²⁰⁾과 일치한다. 문제는 平仄 格式上 “與”字는 仄聲에 해당하지만, 위에서 언급한대로 “與”字는 上去聲異讀字로 上聲이든 去聲이든 모두 仄聲에 해당한다. 따라서 詩律로는 “與”字의 音義關係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다만 두 시구의 의미상 “參加(참가하다), 參與(참여하다)”라는 의미가 아닌 “給子(주다)”라는 의미로 쓰였다는 것은 명확하다.

20) 王力(1989b:508) 참고.

⑦ 值

李商隱의 『北禽』 “설령 두우에게 조회할 수 있다 해도, 송골매를 어찌 당해낼 수 있으랴.”(縱能朝杜宇, 可得值蒼鷹.)”

위의 시 구절에서 詩語 “值”字에 대해서 馮浩의 『玉谿生詩集箋注』(1988:1193)에서는 “‘值’字는 ‘直吏切’으로 독음한다. 마치 『後漢書酷吏傳』에서 “아! 나 번부군이 어찌 맞서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는 구문에서의 “值”字와 같다. (值, 直吏切. 如 『後漢書酷吏傳』: “嗟我樊府君, 安可更遭值” 之 “值”).”라고 하였다. 錢良擇은 “‘值’字는 去聲으로 독음하며, ‘당면하다’라는 의미이다. 스스로 다지고 주도적으로 파악할 수 있더라도, 맹금의 피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이다.(值, 去聲, 當也. 言即能自結主知, 難當猛鷲之害.)”라고 풀이하였다. 참고로 (明) 悟言堂抄本에서는 『北禽』에서 詩語 “值”字를 “阻”字로 기록하였다. 이는 후대에 “值”字의 去聲 音義에 대한 인지가 약화됨에 따라, 『北禽』에서 “당면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值”字 대신, 문맥상 의미가 통하는 “阻”字로 기록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孫玉文(2015:89)은 變調構詞 “直1”에 대해서 “‘直(值)’자의 원시사는 ‘직선 모양’이라는 의미이고, ‘曲(곡선)’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정직하다’라는 의미로 파생되었다. 형용사이며, 독음은 ‘除力切(短入)’이다. 자생사는 ‘당면하다’, ‘정당하다’, ‘임하다’라는 의미이다. 후대에 나온 글자는 ‘值’字이며, 독음은 ‘直吏切(長入)’이다.(首, 原始詞, 義爲成直線形狀, 與 “曲” 相對; 引申爲正直, 形容詞, 除力切(短入). 滋生詞, 義爲當, 正當, 臨, 動詞, 後起字作 “值”, 直吏切(長入).)”라고 설명하였다. 위의 古代 중국어 音義關係에 관한 문헌기록과 분석으로 볼 때, 『北禽』의 詩語 “值”字는 “당면하다”라는 의미로 봐야하며, 독음은 平聲이 아닌 去聲이 타당하다. 또한 馮浩와 錢良擇의 주석은 “值”字의 音義關係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다.

21) 『이의산시집』 (이지운 · 김준연譯), (2018:119) 국문번역 인용.

⑧ 首

李商隱의 『送千牛李將軍赴關五十韻』 “귀신처럼 암흑을 걷어내자, 간악한 자들이 떼 지어 자수했습니다.”²²⁾(神鬼收昏黑, 姦兇首滿盈.)”

위의 시 구절에서 詩語 “首”字에 대해서 “原注”(1988:369)에서는 “‘首’는 ‘去聲’으로 독음한다.(首, 去聲)”라고 하였다. “劉學鐙, 余恕誠注”(1988:369)에서는 “‘首’字는 동사로 쓰였다.(首字作動詞.)”라고 하였고, “姦兇首滿盈”에 대해 “난리를 일으키는 간사하고 흉포한 무리들은 악이 넘쳐나는 징조를 드러내기 시작했다.(作亂之姦兇開始現出惡貫滿盈徵兆.)”라고 풀이했다. 다시 말하면, 이 시구에서의 “首”字를 “처음으로 드러나다”라는 의미로 파악한 것이다.

孫玉文(2015:168)은 變調構詞 “首”에 대해서 “‘首’자의 原始詞는 ‘사람과 동물의 머리’라는 의미이고, 명사이며, 독음은 ‘書九切(上聲)’이다. 滋生詞는 ‘머리를 ~으로 향하다’라는 의미인데, ‘~으로 향하다’, ‘~을 향하다’라는 의미로 파생했다. 동사이며, 독음은 ‘舒救切(去聲)’이다.(首, 原始詞, 義爲人和動物的頭, 名詞, 書九切(上聲)。滋生詞, 義爲頭朝着, 引申爲朝着, 向着, 動詞, 舒救切(去聲。))”라고 설명하였다.

이 詩句 중의 “首”에 대한 劉學鐙, 余恕誠(1988:369)와 孫玉文(2015:168)의 해석은 다소 다르다. 劉學鐙, 余恕誠은 李商隱의 『送千牛李將軍赴關五十韻』의 문맥에 맞게 문학적인 해석했다면, 孫玉文(2015)에서는 고대 중국어의 음의관계에 근거하여 “首”에 대한 원칙적인 해석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지운·김준연譯(2018)에서 “首”字를 “자수하다”라고 번역했다. 시의 문맥상 “어둠이 걷히고 간악한 무리들이 자수했다”는 번역도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首”字 滋生詞의 의미를 생각할 때, 역시 “처음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로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매끄러운 것으로 사료된다.

22) 『이의산시집』 (이지운·김준연譯), (2018:1321) 국문번역 인용.

⑨ 當

李商隱의 『武夷山』(“전설 속 신선의 술인) 겨우 流霞酒 한 잔을 얻었을 뿐이니, 하늘에 피리소리와 북소리 들으며 곧바로 돌아 갈 수 있겠구나.²³⁾(只得流霞酒一杯, 空中簫鼓當時迴。)”

위의 시 구절에서 詩語 “當”자에 대해서 朱鶴齡의 『李義山詩集箋注』(1988:369)에서는 ““當”字는 ‘去聲’으로 독음한다.(當, 去聲)”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紀昀은 ““幾時迴”는 묻는 말이고, ‘更不來’는 대답하는 말이다. 다른 판본에서 이 두 구문이 (문답의 구조가) 중복되는 것을 피하고자 했으나, ‘幾’자를 ‘當’자로 고침으로써 사실 어휘의 의미가 서로 살아나며, 본래 (문답의 구조가) 중복되지 않는다. ‘當時迴’로 고치면 마지막 시구와 합쳐서 죽은 구문이 되므로, 아직 본래 의미가 중복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은 것이다.(“幾時迴”是問詞, “更不來”是答詞. 別本嫌二句犯複, 改“幾”爲“當”, 其實語意相生, 本自不複也. 改爲“當時迴”, 併末句亦成死句, 未論其本不複也.)”라고 하여 자신의 주장은 朱鶴齡의 견해와 다를음을 밝혔다.

劉學鑑, 余恕誠(1988:1951)은 ““곧바로 돌아가다(當時迴)’라는 구문의 의미는 하늘에서 피리소리와 북소리가 나는 그 때에 하늘로 돌아가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을 말하며, 마지막 구문에 있는 ‘다시 오지 않는다(更不來)’는 구문과 상응하여, (세상에) 나갈 때는 그리 빠르더니 (천상에) 돌아올 때는 어찌 그리 늦을까”라고 말한 것이다. ‘當時迴’에서의 ‘迴’자가 ‘하늘로 회귀한다’는 의미인데, 후대 사람들은 ‘인간세상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로 오해했고, 그래서 ‘當’자를 ‘幾’자로 고쳤다.(“當時迴”, 謂空中簫鼓之聲當時即返回天上, 倏然而逝, 與末句“更不來”相應, 謂去之何速, 來之何遲也. 後人因不解“當時迴”之“迴”爲回歸天上, 誤以爲指返回人間, 故改“當”爲“幾”, 與原意相

23) 『이의산시집』(이지운·김준연譯), (2018:686) 국문번역 참고 인용. 본 번역서에서는 원래 “언제야 하늘에 음악소리 울리면서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번역했는데, 이는 “空中簫鼓幾時迴”에 대한 번역이다. 본 연구에서 저본으로 삼고 있는 『李商隱詩歌集解』(劉學鑑, 余恕誠著, 1988) 중의 교감 내용인 “空中簫鼓當時迴”과 상이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이의산시집』(이지운·김준연譯), (2018:686) 국문번역을 참고하여 인용하고 번역내용을 다소 수정했다.

左矣.)”라고 하여 朱鶴齡의 견해를 반박하였다.

만약 朱鶴齡의 해석처럼 “當”자를 去聲으로 읽어야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의 견해는 타당한 것일까? “當”자는 고대한어에서 變調構詞에 속한다. “當”자의 變調構詞 상황에 대해서 孫玉文(2015:106)은 “‘當’자의 원시사는 ‘두 사람이나 두 사물이 서로 담당하다’라는 의미이고, 동사이며, 독음은 ‘都郎切(平聲)’이다. 자생사는 ‘일방이 주동적으로 상대방에게 적응하다’라는 의미이고, 동사이다. ‘적합하다, 적당하다, 타당하다’라는 의미로 동사이며, 독음은 ‘丁浪切(去聲)’이다.(當, 原始詞, 義爲兩兩相當, 動詞, 都郎切(平聲). 滋生詞, 義爲一方主動適應另一方, 動詞; 合適, 合宜, 妥當(事與理相當), 含褒義, 動詞, 丁浪切(去聲).)”라고 설명하였다. 고대한어의 變調構詞의 양상을 다시 살펴보면, “當”자는 평성과 경성의 異義異讀字인데, 李商隱의 『武夷山』에 나오는 “當時”라는 표현은 “곧 바로(立時, 立刻)”라는 의미이므로, 거성의 독음으로 “적당하다, 적합하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의미일 것이다. 따라서 독음이 평성일 때는 동사의 의미이고, 독음이 거성일 때는 동사의 의미를 갖는다. 朱鶴齡이 “當”자를 去聲으로 독음하라고 하는 주석내용은 타당한 것이다.

⑩ 行

李商隱의 『贈柳』 “다리 굽은 곳에서 버들 행렬은 끊어지려 하는데, 방죽 멀리로 여전히 따르고자 하는 마음 있다.”²⁴⁾(橋回行欲斷, 堤遠意相隨.)”

위의 시 구절에서 詩語 “行”字에 대해서 朱鶴齡의 『李義山詩集箋注』(1988:1564)에서는 “‘行’자는 ‘杭’으로 독음한다.(行, 音杭.)”라고 풀이했다.

李商隱의 『擬沈下賢』 “바람에 흔들려 대열은 점점 빨라지며, 눈을 머금은 노랫말은 응당 차가우리라.”²⁵⁾(倚風行稍急, 含雪語應寒.)”

24) 『이의산시집』 (이지운·김준연譯), (2018:115) 국문번역 인용.

25) 『이의산시집』 (이지운·김준연譯), (2018:403) 국문번역 인용.

위의 시 구절에서 詩語 “行”字에 대해서 朱鶴齡의 『李義山詩集箋注』(1988:1747)에서는 “‘行’자는 ‘杭’으로 독음한다. ‘무용의 대열’을 가리킨다.(行, 音杭, 指舞行.)”라고 설명했다.

『廣韻』에서는 平聲 독음(胡郎切)에 대하여 “‘대오’, ‘행렬’(伍也. 列也.)”이라고 했다. 또 다른 平聲 독음(戶庚切)에 대해서는 “‘걸어가다’, ‘가다’, ‘왕래하다’, ‘떠나다’라는 의미이다.(行步也. 適也. 往也. 去也.)”라고 풀이했다. 또한 去聲 독음(下浪切)에 대해서는 “‘순서’(次第.)”라고 했다. 또 하나의 去聲 독음(下更切)에 대해서는 “‘행적과 사건’, ‘말’(景迹又事也. 言也.)”이라고 기록했다. 『群經音辨·辨字音清濁』: “‘行’字는 ‘걸어가다’라는 의미일 때 독음이 ‘戶庚切’이다. ‘행적’이라는 의미일 때는 독음이 ‘下孟切’이며, ‘걸어가서 시찰하는 것’도 같은 독음이다. (行: 履也, 戶庚切; 履迹日行, 下孟切, 或履而有所察視亦日行.)”라고 하였다.

孫玉文(2015:403)은 變調構詞 “行3”에 대해서 “‘行3’자의 원시사는 ‘행렬’이라는 의미이고, 명사이며, 독음은 ‘賄郎切(平聲)’이다. 자생사는 ‘항렬’, ‘차례’라는 의미이고, 명사이며, 독음은 ‘下浪切(去聲)’이다. (行3, 原始詞, 義爲行列, 名詞, 賄郎切(平聲). 滋生詞, 義爲行輩, 輩分, 名詞, 下浪切(去聲).)”라고 설명했다. 이상의 “行”字에 대한 문헌기록과 분석으로 볼 때, 朱鶴齡의 “行”字 音義關係에 대한 견해는 타당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⑪ 稍

李商隱의 『擬沈下賢』 “바람에 흔들려 대열은 점점 빨라지며, 눈을 머금은 노랫말은 응당 차가우리라.²⁶⁾(倚風行稍急, 含雪語應寒.)”

위의 시 구절에서 詩語 “稍”자에 대해서 朱鶴齡의 『李義山詩集箋注』(1988:1747)에서는 “‘稍’자는 ‘上聲’으로 독음한다.(稍, 上聲)”라고 하였다. 『廣韻』에는 “‘稍’字의 去聲 독음(所教切)만 다음과 같이 수록하고 있다. “균 등하다’, ‘작다’라는 의미이다. 『說文』에서 ‘물건이 조금씩 흘러나오다’라고 했다.(均也. 小也. 『說文』曰: ‘出物有漸也.’)”라고 풀이하였다.

26) 『이의산시집』 (이지운·김준연譯), (2018:403) 국문번역 인용.

『集韻』에는 “稍”字의 平聲, 上聲, 去聲의 獨음(師交切/山巧切/所教切)을 수록하고 있다. 平聲 獨음(師交切)에 대해서는 “세금이다.(稅也.)”라고 풀이했다. 上聲 獨음(山巧切)에 대해서는 “조금씩 흘러나오다(漸也.)”라고 풀이했다. 去聲 獨음(所教切)에 대해서는 “『說文』에서 ‘물건이 조금씩 흘러나오다’라고 했다.(『說文』曰：‘出物有漸也。’)”라고 풀이하였다. 近代音 운서인 『集韻』에는 “稍”字의 上聲과 去聲의 獨음(山巧切/所教切)을 수록하고 있다. 上聲 獨음(山巧切)에 대해서는 『集韻』과 같이 “조금씩 흘러나오다(漸也.)”라고 풀이했다. 去聲 獨음(所教切)에 대해서는 “‘먹을 것을 바치는 것’을 ‘稍’라고 한다. 『說文』에서 ‘물건이 조금씩 흘러나오다’라고 했다.(稟食曰稍。『說文』曰：‘出物有漸也。’)”라고 풀이하였다.

『廣韻』과 『集韻』에서 설명한 “稍”字의 音義關係를 종합해보면, “稍”字의 平聲 獨음은 중고음 시기에만 쓰이다가 近代音에서는 음의관계의 변화에 따라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는 “梢”, “髻”, “稍”, “鞘”, “旂” 등 後起字로 바꾸어 쓰였다.²⁷⁾ 반면에 “稍”字의 上聲 獨음과 去聲 獨음은 上古音, 中古音 시기를 거쳐 近代音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稍”字의 上聲 去聲 獨음은 同義異讀字로 성조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朱鶴齡이 “稍”字를 上聲으로 獨음한다고 한 것은 平仄의 관점에서 “稍”字를 平聲이 아닌 仄聲으로 취급해야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朱鶴齡의 방언 속에서는 “稍”字의 去聲 獨음보다는 上聲 獨음이 사용빈도가 높아서 上聲과 去聲 獨음 가운데 특히 上聲으로 獨음이라고 注音한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⑫ 施

李商隱의 『魏侯第東北樓堂郢叔言別聊用書所見成篇』 “마치 꽃 사이를 비집는 듯 구불구불하고, 점점 불에 가까이 가는 듯 따뜻합니다.²⁸⁾(疑穿花透迤, 漸近火溫靡。)”

27) 孫玉文(2015:1617~1625) 참고.

28) 『이의산시집』 (이지운·김준연譯), (2018:817) 국문번역 인용.

위의 시 구절에서 詩語 “迤”字에 대하여, 朱鶴齡의 『李義山詩集箋注』(1988:1801)에서는 “‘迤’자는 ‘上聲’으로 마音한다. 《說文》에서는 ‘逶迤’란, ‘비스듬하게 걸어가는 모양’이라고 했다.(迤, 叶上聲. 《說文》: ‘逶迤, 袞去之兒。’)”라고 하였다. 하지만 주지하는 바와 같이 “마音”이란 후대 사람이 상고시기의 韻文을 읽을 때, 후대의 독음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임시로 독음을 바꿔 압운을 맞추는 것을 말한다²⁹⁾. 만약 朱鶴齡가 주석을 가한 의도를 유추해보면, “迤”字는 본래 성조가 上聲이 아니기 때문에 본 詩의 仄仄에 들어맞지 않는다. 따라서 시율에 맞추기 위해서는 “迤”字의 성조를 인위적으로 上聲으로 고쳐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集韻』에는 “迤”字의 平聲 독음뿐만 아니라 上聲 독음도 있음을 알 수 있다. 『集韻』을 찾아보면 “迤”字의 平聲 독음(余支切)에 대해서 “구불구불 멀리 이어지다, 제멋대로 구불구불한 모양.(委蛇, 委曲自得兒)”이라고 설명하였다. 또 다른 하나의 平聲 독음(唐何切)에 대해서 “비스듬하게 걸어가는 모양.(逶迤行兒.)”이라고 하였다. 또한 上聲 독음(演爾切)에 대해서 “《說文》에서 “비스듬하게 걸어가는 모양’이다.(《說文》: ‘袞行也。’)”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세 가지의 독음은 두 종류의 의미로 분류된다. 첫째, 平聲 독음(余支切)은 “(길이) 구불구불하게 뻗어 있는 모양”을 가리킨다. 둘째, 平聲 독음(唐何切)과 上聲 독음(演爾切)은 모두 上聲 독음(演爾切) “(사람이) 비스듬하게 걸어가는 모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李商隱의 『魏侯第東北樓堂郢叔言別聊用書所見成篇』에서 “逶迤”라는 어휘는 분명히 길이 구불구불한 모양을 가리키므로, 平聲 독음(余支切)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시율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시구의 仄仄은 “(平)平平仄仄, (仄)仄仄平平.”³⁰⁾이 되어야 한다. 문제는 앞 구절의 네 번째 글자와 다섯 번째 글자인 “逶迤”이 모두 平聲이므로, 시율에 일반적인 어긋난다. 朱鶴齡은 “마音”의 방법으로 의미상으로는 平聲 독음(余支切)에 해당하지만, 발음상으로는 仄聲에 해당하는 上聲 독음(演爾切)으로 읽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29) 『王力語言學詞典』(唐作藩 顧問) (1995:598) 참고.

30) 王力(1989b:508) 참고.

2. 詩語의 特徵 및 韻律을 說明한 用例

『李商隱詩歌集解』에 수록된 주석 가운데 詩語의 音義關係와 관련이 있는 注釋 이외에도, 비록 用例는 많지 않지만 詩語의 特徵을 說明하거나 詩의 韻律과 연관된 “疊韻”, “平仄”, “聲病”, “拗救” 등의 개념을 說明을 하는 注釋도 있다. 아래에서 해당 注釋의 內容을 소개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충 說明을 하였다.

⑬ 串:貫

李商隱의 『擬意』: “은하수가 취한 눈을 찌르고, 꿰어진 구슬이 노래하는 이의 목을 흐느낀다.³¹⁾(銀河撲醉眼, 珠串咽歌喉.)”

이상의 시 구절에서 詩語 “串”자에 대해서 馮班注와 馮浩의 『玉谿生詩集箋注』에서 다음과 같이 說明하였다. 우선 馮班注에서는 “『禮記』에서는 ‘반 짝반짝 빛나고 단정한 것이 마치 잘 엮은 옥구슬 같구나’라고 하였고, 『毛詩』에서는 ‘昆夷부족들이 길 가득 도망가거늘’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串’자와 ‘貫’자는 서로 통하며, 古今字(고금자란, 문헌 기록에서 같은 의미의 글자가 시대의 차이에 의해 다른 자형으로 쓰이는 것을 가리킨다)의 관계이다. 『禮記』: ‘纍纍乎端如貫珠.’ 『毛詩』: ‘串夷載路.’ 串, 貫通, 古今字也.”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 馮浩의 『玉谿生詩集箋注』에서는 “내가 생각컨대 『爾雅』에는 ‘閑, 狎, 串, 貫’ 등의 글자가 모두 ‘첩(반복하여 같은 동작을 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의미가 본래 같아서 같은 의미로 쓰인다. 周伯琦는 『六書正譌』에서 ‘貫’자의 속자를 ‘串’자로 보았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또한 古今字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다(按: 『爾雅』: ‘閑, 狎, 串, 貫, 習也.’ 義本相同, 故互用. 周伯琦『六書正譌』以為‘貫’俗作‘串’者, 非也; 亦非古今字之異.)”라고 하였다.

31) 『이의산시집』 (이지운 · 김준연譯), (2018:1544) 국문번역 인용.

⑭ 疊韻

李商隱의 『有感二首』: “관련자를 체포하라는 공문이 엄밀하여, 진술에 연루된 사람은 목숨을 함께 했네.³²⁾(證逮符書密, 辭連性命具.)”

위의 시 구절에서 馮浩의 『玉谿生詩集箋注』(1988:148)에서는 李商隱이 雙聲疊韻의 詩律을 활용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符書’와 ‘性命’의 두 어휘는 모두 疊韻의 관계이다. 義山(李商隱의 字)은 聲律과 雙聲疊韻에 정통하여, 시구의 대구를 이루고 정교하게 한다. 또한 시구 중간에 위아래 관련이 있는 어휘들을 연결하여 사용했다. 예를 들면, 『宋玉』에서 ‘宮’、‘供’、‘夢’、‘送’ 등의 어휘와 『留贈畏之』에서 ‘驚鸚’、‘弄鳳’ 등의 어휘가 그러하다.(‘符書’、‘性命’ 皆疊韻. 義山精於聲律, 疊韻雙聲, 屬對工巧, 且有句中上下字牽搭而用者, 加『宋玉』之‘宮’、‘供’、‘夢’、‘送’, 『留贈畏之』之‘驚鸚’、‘弄鳳’是也.)”라고 하였다.

⑮ 平仄

李商隱의 『漫成三首』 “서로 험뜯지 않은 하손과 범운은 모두가 시인, 당시에 자연경물을 소중히 한 것 이해 못 하지³³⁾.(不妨何范盡詩家, 未解當年重物華.)”

위의 시 구절에서 “妨”字에 대해서 屈復의 『玉谿生詩意』(1988:929)에서는 “不妨”이란 ‘서로 방해하고 훼방놓지 않는 것’을 말하며, ‘妬’와 비슷하다. ‘妬’字는 仄聲이라서 ‘妨’字로 바꿔 쓴 것일 뿐이다.(不妨, 言不相妨, 猶妬也. 妬是仄聲, 故易妨字耳.)”라고 하였다.

우선 중고음(『廣韻』)에서 “妨”字와 “妬”字의 音義關係를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妨”字는 異議異讀字로 독음이 平聲 敷方切일 때 “妨害(방해하다)”라고 했고, 독음이 去聲 敷亮切일 때는 “妨礙(지장을 주다)”라고 하였

32) 『이의산시집』 (이지운·김준연譯), (2018:633) 국문번역 인용.

33) 『이의산시집』 (이지운·김준연譯), (2018:173) 국문번역 인용.

다. 물론 “妨害”와 “妨礙”의 의미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해를 가하는 것”과 “지장을 주는 것”은 정도의 차이가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李商隱의 『漫成三首』중의 “妨”字는 “妬”字를 대체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질투하다”, “투기하다”라는 의미의 “妬”字와 비교적 상응하는 것은 “妨”字의 平聲音義라고 할 수 있다. 『廣韻』에서 “妬”字는 독음이 去聲 當故切로 “妒忌(투기하다)”라고 풀이하였다.

과연 屈復의 견해처럼 “不妨何范盡詩家”라는 시 구절에 본래 仄聲인 “妬”字를 넣는 것이 더 명확한데, 詩律을 맞추기 위해 平聲인 “妨”字를 대신 넣었을까? 王力(1989b:514)에서는 七言絕句의 平仄 格式 가운데 “首句 平起平收式”을 “(平)平(仄)仄平平, (仄)仄平平仄仄平.”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이 平仄 格式은 李商隱의 『漫成三首』의 平仄 格式에 정확히 맞으므로 李商隱의 『漫成三首』는 七言絕句임을 증명할 수 있다. 또한 이 平仄 格式 속의 두 번째 글자는 반드시 “平聲字”가 되어야 한다. 즉, 仄聲인 “妬”字는 두 번째 글자의 위치에 올 수 없다. 따라서 屈復의 견해는 近體詩의 시율을 근거로 판단한 것으로 대단히 타당성이 있다.

⑩ 聲病

馮浩의 『玉谿生詩集箋注』(1988:1615)에서는 李商隱의 『齊梁晴雲』라는 시의 주석을 달면서 詩律의 연변과정과 “聲病(중국시가에서 운율규율과 어긋나는 문제)”에 대해 “남조의 제량체의 시가는 점차 고체시와 율시로 변화하였고, 지금 그 거친 흔적을 가지고 이를 논해보자. 배우가 많고 산행은 적다. 채색이 농후하고 담백한 언어가 적다. 구문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 말하면, 율시의 구문이 있고, 고체시의 구문이 있다. […] 무릇 字義는 한 번 정해지면 바뀌지 않는데, 독음은 오늘날과 옛날이 다르고, 남북이 다르다. 당 이전에는 시에 능숙한 사람은 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송대 이후에는 시를 공교하게 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聲病에 대한 학문에는 전문가가 실제로 적다. 4성 중에 각기 5음이 있는데, 하물며 평성과 측성으로만 나눈다면, 그 즐거움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는가? (齊梁體爲變古入律之漸, 今就其粗述論之, 排偶多而散行少也, 采色濃而澹語鮮也. 分句言之, 有律句焉, 有古句焉! […] 夫字義一定不易, 而音則今古有異, 南北有殊. 唐以前能詩者,

未有不知音；宋以後不知音者，未爲不工詩也。聲病之學，專家實鮮，四聲中各有五音，況僅以平仄分之，更何從得其趣哉？”라고 설명하였다.

⑰ 拗救

李商隱의 『哭虔州楊侍郎』 중 “어사대부가 바야흐로 밖에서 어명을 바꾸자,
경조운은 결국 구금되었다.³⁴⁾(中憲方外易, 尹京終就拘.)”

위의 시 구절에 대해서 紀昀은 『玉谿生詩說』(1988:227)에서 “‘中憲’으로 시작하는 두 시구의 성조도 칠언율시의 ‘拗’와 같아서, 여섯 번째 글자 이하의 시구에서 세 개의 평성은 그것을 ‘救’한 것이다.(‘中憲’ 二句聲調亦如七言之拗, 第六字以下句三字平聲救之也.)” 王力(1989a:338)에서는 “拗救”에 대해서 “무릇 仄仄이 일반적인 격식을 따르지 않는 시구를 ‘拗句’라고 한다. […] ‘拗句’는 詩律속에서 상당히 자주 보이는데, 앞 구의 한 글자에 ‘拗’가 사용되면, 뒤의 구에 반드시 ‘救’를 사용해야한다. 소위 말하는 “救”라는 것은, 바로 보상이다. 일반적으로 앞 구에서 仄聲을 사용해야할 곳에 仄聲을 사용하면, 뒤의 구에서는 반드시(혹은 자주) 적당한 위치에 한 개의 평성을 보상해야한다. (凡平仄不依常格的句子, 叫做拗句. […] 它在詩律中也是相當常見的, 但是前面一字用拗, 後面還必須用“救”. 所謂“救”, 就是補償. 一般說來, 前面該用平聲的地方用了仄聲, 後面必須(或經常)在適當的位置上補償一個平聲.)”라고 설명했고, 아울러 세 종류의 가장 일반적인 “拗句”의 용례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두 번째 용례는 “仄仄平仄仄”를 사용해야하는 곳에 네 번째 글자를 仄聲(혹은 세 번째와 네 번째 두 글자 모두 仄聲을 사용함)을 사용하고, 다음 시구의 세 번째 글자를 平聲으로 고쳐 補償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仄)仄(平)仄仄, (平)平平仄平”의 격식이 된다.(在該用“仄仄平仄仄”的地方, 第四字用了仄聲(或三四兩字都用了仄聲), 就在對句的第三字改用平聲來補償. 這樣就成爲“(仄)仄(平)仄仄, (平)平平仄平”.)”라고 했다. 이는 『哭虔州楊侍郎』의 “拗”와 “救”를 설명하기에 알맞다. 즉, 紀昀이 “拗句”라고 한 『哭虔州楊侍郎』의 “中憲方外易, 尹京終就拘.”의 平仄 格式이 정확

34) 『이의산시집』 (이지운 · 김준연譯), (2018:534) 국문번역 인용.

하계 “(仄)仄(平)仄仄, (平)平仄仄”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哭虔州楊侍郎』의 네 번째 글자가 본래 平聲이어야하지만 仄聲의 “外”字를 사용했고, 이로 인해 두 번째 시구의 세 번째 글자를 平聲의 “終”字를 사용해서 보상하고, “救”한 것이다.

Ⅲ. 결론

본 연구는 李商隱 詩 舊注에 수록된 詩語의 音義關係를 탐색하고 유형을 파악하고 각 유형을 설명했다. “詩語의 音義關係를 說明한 용례”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용례를 12개 찾았고,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째 유형은 “李商隱 詩語의 音의관계에 대한 注釋이 古代 中國어의 音의관계와 일치하는 용례”로 모두 9개이다[“冰”字, “摻”字, “中”字, “值”字, “首”字, “當”字, “行”字, “稍”字, “迤”字]. 이 가운데 “시울의 平仄까지 고려해야만 音의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용례”는 3개이다[“中”字, “與”字, “迤”字].

둘째 유형은 “李商隱 詩語의 音의관계에 대한 注釋이 古代 中國어의 音의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용례”이고 용례는 단 한 개다[“燒”字]. 더구나 이 용례는 原始詞와 滋生詞의 音의관계가 서로 엇갈리게 되어있다(일명 “義從△△, 讀從○○”유형). 이와는 별도로 “李商隱 詩語의 원시사와 자생사가 모두 仄聲인 까닭에 시울의 平仄을 가늠할 수 없는 용례는 2개이다[“數”字, “與”字].

李商隱 詩語의 音의관계에 대해 어떤 注釋家들이 注釋을 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朱鶴齡: “冰”字(『石城』, 『蠅蝶雞鸞鸞鳳等成篇』); “燒”字(『腸』); “數”字(『回中牡丹為雨所敗二首』); “中”字(『哭劉司戶賁』); “當”字(『武夷山』); “行”字(『贈柳』, 『擬沈下賢』); “稍”字(『擬沈下賢』); “迤”字(『魏侯第東北樓堂郢叔言別聊用書所見成篇』)[총10회]
- 馮浩: “冰”字(『柳枝五首』); “摻”字(『聽鼓』); “燒”字(『腸』); “值”字(『北禽』)

[총4회]

- 紀昀: “當”자(『武夷山』)[총1회]
- 錢良擇: “值”자(『北禽』)[총1회]
- 原注: “首”자(『送千牛李將軍赴關五十韻』)[총1회]
- 劉學鐙、余恕誠[현대 학자]: “數”자(『李花』); “與”자(『辛未七夕』, 『悼傷後赴東蜀辟至散關遇雪』); “首”자(『送千牛李將軍赴關五十韻』); “當”자(『武夷山』)[총5회]

清代 학자 중에는 朱鶴齡이 10회로 가장 많고, 두 번째로 많이 注釋을 단 학자는 馮浩로 총4회였다. 이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唐詩를 연구했던 明清代 학자들은 많았지만 詩를 문학으로서만 접근하지 않고 音韻, 詞義, 詩律 등 언어학적으로 연구했던 학자들은 소수에 불과했다는 것이며, 또한 그들이 가한 주석도 수량이 아주 많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朱鶴齡이나 馮浩 같은 학자들의 注釋은 언어 연구에 좋은 참고자료가 된다. 그들 注釋의 내용은 표면적으로는 간단해보이지만, 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音義關係와 詩律을 모두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해석을 했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깊이 있고 정확한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李商隱의 詩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역대 학자들의 注釋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하고, 역대 학자들의 注釋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音韻, 詞義, 詩律 등의 기초지식을 기반으로 역대 학자들의 注釋을 세 부적으로 파악해야만 간단한 注釋 속에 숨어 있는 注釋家들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는 평범한 이치를 새삼 되새길 수 있었다

참고문헌

- [梁]顧野王著, 『原本玉篇殘卷』, 中華書局, 1985/2004.
- [梁]顧野王著, [宋]陳彭年等重修, 『大廣益會玉篇』, 中華書局, 1987/2004.
- [隋]陸德明著, 黃坤堯, 鄧仕樑校訂索引, 『經典釋文』, 學海出版社, 1988.
- [唐]李白著, [清]王琦注, 『李太白全集』, 中華書局, 1977.
- [唐]杜甫著, [清]朱鶴齡註, 『杜工部詩集』, 景康熙九年刊本, 中文出版社.
- [唐]杜甫著, [清]趙次公注, 『杜詩趙次公先後解輯校』, 上海古籍出版社, 1994.
- [唐]杜甫著, [清]黃希原注、黃鶴補注, 『補注杜詩』, 『文淵閣四庫全書』本, 台灣商務印書館.
- [唐]杜甫著, [清]錢謙益箋註, 『錢牧齋先生箋註杜工部集』, 『續修四庫全書』, 上海古籍出版社.
- [唐]杜甫著, [清]仇兆鰲注, 『杜甫詳注』, 中華書局, 1979.
- [唐]杜甫著, [清]施鴻保著、張慧劍校, 『讀杜詩說』, 上海古籍出版社, 1983.
- [唐]李商隱著, [明]錢龍惕注, 『玉谿生詩箋』, (『李商隱詩歌集解』 수록본), 中華書局, 1988.
- [唐]李商隱著, [清]朱鶴齡注, 『李義山詩集箋注』, (『李商隱詩歌集解』 수록본), 中華書局, 1988.
- [唐]李商隱著, [清]吳喬注, 『西崑發微』, (『李商隱詩歌集解』 수록본), 中華書局, 1988.
- [唐]李商隱著, [清]陸崑曾注, 『李義山詩解』, (『李商隱詩歌集解』 수록본), 中華書局, 1988.
- [唐]李商隱著, [清]姚培謙注, 『李義山詩集箋注』, (『李商隱詩歌集解』 수록본), 中華書局, 1988.
- [唐]李商隱著, [清]屈復注, 『玉谿生詩意』, (『李商隱詩歌集解』 수록본), 中華書局, 1988.
- [唐]李商隱著, [清]程夢星注, 『李義山詩集箋注』, (『李商隱詩歌集解』 수록본), 中華書局, 1988.
- [唐]李商隱著, [清]馮浩注, 『玉谿生詩集箋注』, (『李商隱詩歌集解』 수록본), 中華書局, 1988.

- [唐]李商隱著, [清]紀昀注, 『玉谿生詩說』, (『李商隱詩歌集解』 수록본), 中華書局, 1988.
- [宋]陳彭年, 丘雍等重修, 『廣韻』, 中華書局, 1960.
- [宋]賈昌朝著, 『群經音辨』, 商務印書館, 1934.
- 周祖謨, 「四聲別義釋例」, 『問學集』, 北京, 中華書局, 1946.
- G. B. Dower(唐納), 「Derivation by Tone-change in Classical Chinese」, 『Bulletin of the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No.22』, London, 1959.
- 周法高, 『中國古代語法·構詞編』,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專刊之三十九, 臺灣, 1962.
- 唐作藩, 「破讀音的處理問題」, 『辭書研究』, 北京, 第2期, 1972.
- 陳永正, 『李商隱詩選』, 香港, 三聯書局, 1980.
- 王力, 『漢語史稿』, 北京, 中華書局, 1980.
- _____, 「『經典釋文』反切考」, 『音韻學研究』, 北京, 第1輯, 中國音韻學研究會, 1984.
- _____, 『詩詞格律』, (『王力文集』第十五卷), 濟南, 山東教育出版社, 1989a.
- _____, 『詩詞格律概要』, (『王力文集』第十五卷), 濟南, 山東教育出版社, 1989b.
- 許威漢, 『訓詁學導論』,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1987.
- 程俊英, 蔣見元, 『詩經注析』, 北京, 中華書局, 1991.
- 張聯榮, 『古漢語詞義論』,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
- 季旭昇, 『說文新證』, 臺北, 藝文印書館, 2004.
- 王寧, 『訓詁學』,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2004.
- 蔣紹愚, 『古漢語詞彙綱要』, 北京, 商務印書館, 2005.
- 郭錫良, 『漢字古音手冊』(增訂本), 北京, 商務印書館, 2010.
- 孫玉文, 『漢語變調構詞考辨』, 北京, 商務印書館, 2015.
- [唐]李商隱著, 劉學鐙、余恕誠著, 『李商隱詩歌集解』, 中華書局, 1988.
- [唐]李商隱著, 이지운·김준연譯, 『이의산시집』, (상, 중, 하), 학교방, 2018.

❖ ABSTRACT

A Phonetic and Semantic Analysis on the
Annotations of Li ShangYin (李商隱)'s Poetry

Yum, Jae-ung

Li ShangYin (李商隱) was a poet who represented the late Tang period and authored more than 590 poems. In this paper, I have searched for various phonetic and semantic relationships through the attention of scholars' annotation about Li ShangYin (李商隱)'s poetry. As a result, we found 12 types of "examples that explain the phonetic and semantic relationships of poetic words" and five types of "examples that explain the features of poetic words and prosody." Especially, through analysis of "examples that explain the phonetic and semantic relationships of poetic words", it is divided into two types. The first type is that the scholars' annotation about Li ShangYin (李商隱)'s poetry and phonetic and semantic relationships of poetic words are matched, and the second type is that the scholars' annotation about Li ShangYin (李商隱)'s poetry and phonetic and semantic relationships of poetic words are inconsistent. In this study, I applied the theory of level and oblique tones for more detailed analysis of each type.

Key Words : Li ShangYin (李商隱)'s Poetry, Phonetic and semantic analysis,
Variants of old Chinese words, Derivation by tone change,
Prosody of Chinese poem

■ 논문접수일 : 2018. 08. 10

■ 심사완료일 : 2018. 08. 31

■ 게재확정일 : 2018. 09. 03

